

한글대장경 280권 마무리 예산 부족

“역경지원 예산 축소 안된다”



역경사업의 원활한 회항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 각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금까지 발간된 한글대장경.

정부 15% 삭감 재검토 해야
조계종 총무원 예비비 보충키로
‘한글대장경’ 판매저조... 불자 관심 절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대장경 역경사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정부와 조계종이 재정지원규모를 축소하고 후원회마저도 지원계획이 없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64년 시작돼 35년간 2백50여권의 한글대장경을 펴내고 마지막 남은 30여권을 마무리함으로써 대장불사를 회향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역경은 조계종단 3대사업의 하나로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문화유산 개발굴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돼 왔다. 최근 5년간 예산지원은 연간 정부 4억, 조계종단 1억원씩을 비롯 동국대와 후원회 등이 분담해 왔으나 역경원 한 해 소요예산 12~13억원에는 크게 못미쳤다.

그러나 문화부는 정부 각 부처 예산이 15% 삭감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6천만원 줄어든 3억4천만원만을 올해 지원예산으로 편성, 국회 예산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은 1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절반을 삭감한 5천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역경이 국가적 사업임을 고려해 예비비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5년간 24억

지 지원되다가 80년대 들어 국고지원 중단사태로 오랫동안 역경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데다 또다시 역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업예산의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해 온 대장경 판매도 IMF영향으로 크게 줄어, 올해 1~3월간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사찰과 불자들이 한글대장경 단 한 권씩만 구입하더라도 상황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또 스님들이 관심을 높인다면 한글대장경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올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 회향할 계획”이라면서 “역경불사는 단순히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사업이므로 종단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열린마음 열린불교

원혜스님 지음

“모든일의 출발은 열린마음입니다”

열린마음 열린불교



원혜스님의 두 번째 수장집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울 한울 엮어진 책. 오늘과 미래의 불교를 넘나들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고 대승보살정신이 삶을 이끄는 힘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변화는 작은 겨자씨 속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불과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인식해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강조한다. 또 현대사회에서의 수행의 기능과 정법·복지·사회·문화적 기능이 사찰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맺어져야 하는가를 통해 미래불교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8천원)

화제의 책

마음자리마다 별빛이

원공스님 지음

‘참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인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지혜에 있으며, 그 지혜를 조금씩 살려 낸다면 자신이나 세상에 지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살려 낼 수 있는가. 원공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찾은 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보람과 인생의 충실감이 얻어지며, 늘 최고의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역경과 실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영원하며, 자기 속의 또 다른 자기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반야심경을 통해 투시하고 있다. (토방 8천5백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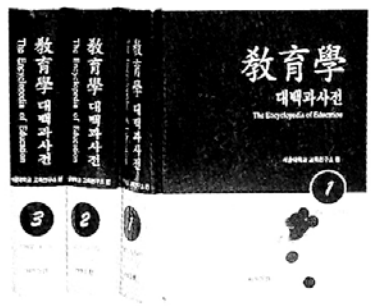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문화

임영정 지음

불교와 한국문화의 독창성 조명

한국의 전통문화

조각 건축 미술 등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이 불교적 특색을 띠고 있다. 특히 양식적인 면에서는 분명 우리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우리만의 것으로 정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불교문화를 포함한 우리 문화가 어떤 과정과 굴곡을 거쳐 발전해 왔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개념에서부터 불교의 수용과 발전, 불교문화의 일본전파 등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함께 이차돈, 일연, 해초스님 등을 전통사회 발전의 공헌자로 다루고 있다. 이밖에 도선의 풍수지리설, 민간신앙, 세시풍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9천9백원)



‘불교의 교육사상’ 등 5책여 항목

『교육학 대백과사전』 나왔다

찾고자 하는 주제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가 22만원. 하우동설 출판사 (02)997-9728

종교를 포함한 교육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육학 대백과사전』(하우동설)이 나왔다. 서울대 교육연구소(소장 윤정일)가 편찬한 『교육학 대백과사전』은 한국 동서양 교육사를 비롯 교육철학 사학회 심리학 행정학 재정학 등 31개의 교육영역을 분류, 각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요개념 및 주제 5백여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불교의 교육사상’과 ‘원효의 교육사상’이 소개돼 있으며, 동국대 박선영교수와 이와여대 정희숙교수가 각각 집필했다. 이외에도 ‘교육과 종교’, ‘종교교육과 도덕교육’ 등 종교관련 분야도 다루고 있어 교계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교육정보자료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x6배판 크기에 총3권 3천1백여쪽의 분량으로 전국 1백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5백여명의 연구인력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가나다순과 분야별로 표제어 목록이 마련돼 있어 찾고자 하는 주제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정가 22만원. 하우동설 출판사 (02)997-9728

조계종 포교원 ‘불교교리’ 펴내

사람에서 쉽게 불자들을 교육할 수 있고, 일반인도 불교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교재 『불교교리』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이 펴낸 이 책은 입문교육을 마친 불자들이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교리교육교재로 ‘부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부처님 법을 따르면 어떤 과보가 있는 지’ ‘바른 수행이란 무엇인지’ 등 수행의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교의 종교적 이해와 실천·불교의 근본교리가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새로 나온 책



▲티벳 사자의 서=94년 나왔던 <티벳 사자의 서>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새로 선보였다. 불교가 말하는 삶의 지혜와 사유의 정수를 통해 죽음의 길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내적인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한다. 죽음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사 1만5천원)

▲개벽시대를 여는 사람들=저자인 이화여대 최준식교수는 우리의 전통속에 살아 숨쉬는 종교와 문화를 무시한 채 외래 문화를 맹종하고서서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이 최재우, 최시형 등 겨레의 스승 5인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주유성 7천5백원)

▲남산이래 큰 동네=서울 남산에서 정계천에 이르는 중구 일대의 역사, 지리, 민속 등을 뽑아 엮은 책. 송례문 등 보존해야 할 유산과 광고 등 지금은 없는 역사유적을 사진자료와

‘작은책과 떠나는 불교여행’ 시리즈 9·10·11권

‘선사열전’ ‘불교의 역사’ ‘축도장정’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 좋고 두껍지 않아 부담없이 골라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나 불법의 향기가 가득한 책. 민족사에서 <작은 책과 떠나는 불교여행>시리즈 9·10·11 번째인 <선사열전> <불교의 역사> <축도장정> 세 권이 나왔다.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쓴 <선사열전>은 달마 예가 승한 도신 등 42명 선사들의 삶의 자취와 일화를 통해 초탈적 여유와 향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봉훈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교의 역사>는 인도 중국 한국 불교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세 나라

불교의 발전과 변천을 짚으면서 불교가 교리나 신앙세계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함축임을 느끼게 한다.

<축도장정>은 조흥은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가 그의 스승 민영규박사와 함께 한국과 중국선종사의 맥을 짚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천성을 뒷면에 걸쳐 탐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축은 중국의 사천성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선종사 전개현장과 신라불교의 정립 및 삼계교(三階敎)에 대한 내용을 축으로 조교수가 탐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사야원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대불교선종사	여시아문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3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4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연	민족사
5	무소유	법정	범우사
6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문화연구원	반출판사
7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8	불교인문	조계종연구원	조계종출판사
9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교과연구회	동국대불교문화대학
10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타	대원정사

구입문의: (02)737-0695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 이 곳의 흐릿한 미담, 아름다운 민속, 애환이 깃든 곳도 함께 곁들여 흥미를 더한다. (수문출판사 9천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들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초지)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사물), 석등, 담,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